"왕의 대로를 건설하는 자"

왕이 도착하기 전에 전령이 먼저 옵니다. 사람들은 왕이 온 걸 아직 못 보았지만, 전령의 말을 믿고 왕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그 왕이 여호와 주님이시라고 합니다 (사 40:3~5). 복음서 기자들은 세례 요한을 그 전령으로 지목하여, 그 뒤에 오실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회개의 마음과 영원한 회복을 기대하는 맘으로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오심과 그 결과로 이뤄지는 회복을 믿고, 하나님의 전령과 그 대로의 건설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번역선교사들도 그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며 그 말씀을 받고 믿는 자들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걸 믿습니다 (5, 8).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말로 전해주려 할 때 많은 골짜기와 산과 언덕이 있습니다.

팝치스 선교사 부부는 카넬라 부족을 위한 성경번역 사역이 큰 장애를 만나지 않고 왜 그렇게 잘 진행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 논의하기 위해 모인 다른 선교사들은 팝치스 부부가 부럽기만 했습니다. 팝치스 부부에게는 성경번역 사역이 마치 잘 닦여진 고속도로 같았습니다. 카넬라 부족과의 관계와 그들의 지원을 생각해보면, 그 길에는 급히 구부러지는 곡선구간도,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지역도, 낙석으로 위험한 지역도 전혀 없었습니다.

팝치스 부부는 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온 편지를 받고서야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지역에 선교사로 일하다 우연히 카넬라 마을을 발견했던 사람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무서워서 피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 기도했고, 팝치스 부부가 카넬라말로 성경 번역을 마칠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아일랜드 분은 자신을 소개했고, 우리는 그분이 브라질의 카넬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가 아직 우리 부모님들이 결혼하기 전 10 대였을 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조가 태어나기 10 년도 전의 일입니다! 그분은 그 때부터 40 년 동안 신실하게 카넬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맘 때 저희는 30세 나이로 성경번역을 위해 카넬라 마을에 왔습니다. 그분은 또 22년을 더 기도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카넬라 말로 다 번역되고, 그 결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62년의 기도 끝에 하나님이 그분을 데려가셨습니다. 얼마나 큰 상급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 기도에 매여 이 땅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자녀들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일랜드 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올 때 카넬라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22년 동안 카넬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했지만, 그 분은 62년 동안 하나님께 카넬라 사람들에 대해 말했던 것입니다. 이 둘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카넬라 말로 번역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직접 카넬라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 위클리프 국제 연합 웹페이지에서 인용)

지금 우리가 RBBB에 참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대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 글: 이규준 그림: 김예은

8/6	8/7	8/8	8/9	8/10	8/11	8/12
사 25-28	사 29-32	사 33-36	사 37-40	사 41-43	사 44-47	사 48-50

주님, 우리를 굳게 잡으시는 사랑의 줄로 매시고, 그 줄에 스스로 매여 저희로 동역의 놀라운 특권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성경없는 민족들에게 그분의 말로 주님이 오시고 주님 나라가 속히 이뤄지게 해주세요.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Wycliffe

Aug 6	Aug 7	Aug 8	Aug 9	Aug 10	Aug 11	Aug 12
Isa 25-28	Isa 29-32	Isa 33-36	Isa 37-40	Isa 41-43	Isa 44-47	Isa 48-50

"God's Highway Builders"

words by Gyoojun Lee & illustration by Yaeeun Kim

A herald always comes before his king. People cannot see the king coming yet, but they have to believe what the herald says and prepare for the king's arrival. Isaiah said the King is the Lord, YHWH (Isaiah 40:3-5). By designating John the Baptist as the voice of the herald, Gospel writers clearly manifested Jesus as the Lord, God! The mission of John the Baptist was to help God's people prepare for Jesus' arrival with repenting hearts and expectations for their everlasting restoration.

There are many types of God's heralds and express builders who truly believe in the King's coming and their restoration as the result, bible translators being one of them. We believe God's Word will last forever and proclaim the restoration of the peoples who receive and believe it (5, 8). But there are many valleys, mountains and hills that make their ministries very difficult on the path to the delivery of God's Word in the recipients' language.

The Popjes did not understand why their translation project for Canela people went so smoothly without meeting any type of serious barriers. Other translators envied them as all the translators met together to discuss how to overcome the barriers they were facing. For the Popjes, their translation path was like a well-paved expressway. There were no sharp corners, sight-limited routes, or stone-falling areas. It was all straight and fast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local people and their support.

The Popjes finally got a hint for why when they received a letter from Belfast, Ireland. It was sent by a former missionary who traveled over the Canela people's village by chance. He was scared off by the people but he have kept praying for them since then until the Popjes finished the Canela translation.

As the Irishman went on to tell us more about himself, we realized he had started praying for the Canela of Brazil when our parents were still teenagers! A full ten years before Jo and I were born! He prayed faithfully for the Canela for forty years, until we finally got there—as thirty year-old linguist-translators. Then he prayed for another twenty-two years, until God's Word was translated into Canela and the Church was established. Finally, after sixty-two years of praying, the Lord took him Home, no doubt to an exceedingly great reward.

God seems to have bound Himself to act on earth mostly as His people ask Him to. He voluntarily limits Himself to work in this world mainly in response to the prayers of His children. He prepared the Canela for our coming as an answer to that Irishman's prayers. Jo and I spent twenty-two years of our lives talking to the Canela about God. The Irishman from Belfast spent sixty-two years of his life talking to God about the Canela. Both activities were needed for the Canela to receive God's Word in their language.

Now God can speak to the Canela about Himself directly from His Word! (quoted from the former Wycliffe Global Alliance's webpage.)

Why don't we become a builder of God's highway for a Bibleless people group?

Week 31 Prayer: Lord, thank You for binding us with the rope of Your love and for allowing us to enjoy the wonderful privilege and joy of joining Your Mission, binding Yourself through that love! Please come and establish Your Kingdom as You bring Your Word in their heart languages.